

DB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지난 4월 2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회의실에서는 “DB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南宮 楨 사장(한국PC통신)외 9명이 참석하여 DB산업 전반에 관한 문제점 도출과 대안을 제시한 금번 토론회는 DB산업을 각계에서 조명해 보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됐다. 본 지에서는 토론회의 내용과 결과를 요약 정리했다. <편집자 주>

DB산업과 관련된 각계의 전문가가 참석한 금번 토론회는 국내 DB산업 발전을 위한 방향 설정과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한 차원 높게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의를 갖는다.

참석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崔承泰 과장(체신부 정보통신국)
- 李延旭 본부장(한국통신)
- 金大圭 전무이사(데이콤)
- 南宮楨 사장(한국PC통신)
- 朴人伯 전무이사(포스데이타)
- 文松天 교수(한국과학기술원)
- 朴 錫 교수(서강대학교)
- 乃昌燁 사장(한국무역시장정보)
- 玄湖仲 상무이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張元興 전무이사(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우선 본 토론회의 주요 토론 의제는 다음의 5가지로, 각 의제에 대한 참석자들의 토론요지를 정리해 본다.

- 우리나라 DB산업의 당면과제 및 해결방안
- DB/IP 사업 활성화 방안

- VAN사업과 DB, IP사업과의 유기적 협력 방안
 - 공공 DB의 효과적 개발·보급 및 활용 방안
 - DB 이용 활성화 방안
- 각각의 의제는 그 내용과 범위가 방대하며 그 중요성도 역시 어느것 한가지 빼놓을 수 없는 사안이기에 토론 또한 매우 진지했는데, 처한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처방들이 다수 제시되었다.

첫째로, 공공정보의 공개 및 공익 DB개발을 위한 「정보공개법」의 제정을 촉진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를 위하여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DB와 생산정보의 관리를 체계화하여 단계별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공공DB는 공익DB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공익 DB의 구축 계획 수립과 추진도 병행하여야 한다고 내다봤다. 나아가 이를 조정하는 민·관 위원회의 구성과 정보공개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구축된 DB의 도용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공익DB를 민간에 제공하여 개발 및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며, 공익 DB의 가공 및 부가정보의 추가 등을 기업화 여건도 아울러 추진돼야 한다는데 전체적으로 공감을 했다.

둘째로, DB를 자산권으로 인정하고 평가하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제도는 DB업체에서 신용보증이나 은행 대출시에 DB를 담보로써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기업내에서 감가상각과 세제상의 지위확보, 대차대조표상 DB가 자산으로써 등재될 수 있는 요령 등이 여기에 수반된다.

셋째로, DB/IP사업자의 자격요건과 DB구축시 드는 비용에 대한 기준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같이 했다. 이 기준은 정부 및 유통업자가 DB/IP사업자에게 육성 자금등을 지원할 때 적정업체 선정에 관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자금의 지원 규모를 설정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보유 H/

W, S/W, 인력, 정보소스, 정보 처리 및 분석기술, 인력 등을 고려하고 정보분야와 DB구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가공·입력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구조를 분석하고 정형화 하는데 있다고 봤다.

네째로, 국산 DBMS개발 활성화와 실용화를 위한 연구조합의 결성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현재 국내에 DB구축과 유통에 필수적인 DBMS수요는 연간 약1,0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대부분 해외 DBMS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국내 기술수준은 세계 5,6위 권으로 국가적차원의 자원을 바탕으로 관련업체간에 연구조합을 결성하고, 국산 DBMS를 개발하여 저가로 보급함으로써 DB구축과 이용 실용화를 촉진함과 아울러 외국제품과 경쟁력있는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다섯째, DB이용시 정보통신요금의 조정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 일반 전화요금을 적용하는 현재의 DB이용 통신요금의 인하는 DB이용을 촉진할 수는 있으나 전화요금 수익중 일부가 DB관련 기반사업에 투자중임을 감안하여 요금감면 문제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평가 후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한편, 해외의 경우 미국은 DB이용시 통신요금이 일반 전화요금과 동일한 반면, 프랑스와 일본은 일반 전화요금의 3배를 받고 있다.



여섯째, 공익 DB의 개발과 민간 DB/IP업체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자고 했다. 이러한 환경의 구축은 수익성보다는 사회간접자본 축적 개념으로 추진하되, 공익성이라는 관점에서 개발대상이 되는 과제, 즉 정보분야의 우선순위 결정과 아울러 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센터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내 현황과 계획을 전반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민간업체가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한편, 현재 국내 DB의 공급과 수요기반이 대단히 취약함으로 우선적으로 공급위주의 방향으로 추진하여 수요를 촉진하되, DB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정보검색교육, 검색 자격제도 등을 관련업체가 협력하여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일곱째, DB관련 민간부분과 정책당국의 역할을 적절히 분담하여 DB산업을 활성화시키자는 방안이 대두됐다. 역할분담안으로서는 정부측에서 정책과 법·제도 정비 등의 환경개선과 각종 표준을 확정하고 기간

통신업자는 양질의 통신망을 건설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이용자의 적절한 관리와 함께 단말설비의 운용, 요금 징수 대행과 마케팅이 실시돼야 한다. 또한 DB유통업자는 호스트를 구축하고 운용하며 활용도 높은 DB서비스를 실시하는 한편, DB/IP업자는 각종 정보의 수집, 가공, 분석, 입력 및 갱신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나아가 DB산업을 유통부문과 DB/IP구축 부문으로 구별하여 업체간 전문화를 기할 수 있는 추진 노력도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현재 실정으로 보아 DB유통과 구축을 병행하는 것은 시장규모에 비해 소요비용이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B/IP구축부문도 정보분야별로 제휴하여 규모의 확대와 정보의 질적개선이 필요한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고 정책당국과 업계간의 협의를 거쳐 실천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끝으로, DB산업 육성을 위한 정보산업육성법(가칭)에 대한

의견으로써, 정보산업 육성에 관한 국가전략계획에서 정보산업 분류가운데 소프트웨어의 한 부분에 DB분야가 속한 것을 별도 대분류 항목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해 DB산업의 육성에 관한 독자적인 범조항의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DB산업 활성화를 위한 이번 토론회는 여느 모임과는 다른

몇가지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하나는 관련부처 담당자, 기간통신사업자, 학계, 업계등 각 부분의 대표적인 전문가들이 함께 모였다는 것이고, 둘째 그동안 발표된 문제점과 처방은 어느 한쪽의 시각에서 바라본 의견이 많아 균형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우리의 DB산업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데 의의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여느때보다 상당히 실제적인 수준의 논의와 처방이 제시되어 앞으로 DB산업 발전을 위한 고무적인 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자주 이같은 모임을 갖고 상호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행사안내

♥ 「정보문화의 달」 (6월) 행사개최

센터에서는 지난 4월 26일에 가졌던 「DB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체신부 주관)에서 논의된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토대로 DB산업의 중장기적인 육성방안을 제시, 국가 주력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DB관련 각계인사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 행사명 : 「DB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 일 시 : 1993. 6. 23(수) 14:00 - 18:00

☞ 장 소 : 한국종합전시장(KOEX) 4층 소회의실

☞ 주요내용

『제 1 부 - 주제강연 및 토론』

- 공공정보의 공개 및 관련 제도부문

『제 2 부 - 주제강연 및 토론』

- DB 공급, 유통부문 개선과 수요확산 방안

☞ 기타사항

- 참가비 무료

- 당일 자료집 및 「DB월드」 제공

☞ 문 의 처

- (재)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진흥부 (☎ 725 - 3751/3)